

육계가격 폭락의 원인

병아리 값 470원, 육계전기사료 4만여톤 생산, 월육계 사료생산 10만톤 돌파 등의 생산과잉, 노사분규로 단체 소비 격감, 태풍과 폭우로 계속된 복중성수기 소비부진 등으로 사상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었던 여름철이었다. 단기간의 회복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금년 삼복의 여름은 양계인으로서 예년에 없었던 육계 가격의 폭락에 양축가는 물론 이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과 업계에 큰 교훈과 파문을 던진 것 같다.

셀마로부터 시작된 태풍과 계속되는 폭우를 과연 하늘만 원망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 모두를 불행으로 만든 원인과 문제가 무엇이었나를 깊이 생각하고 사회 문제, 참된 반성은 보다 나은 내일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육계 가격의 등락에는 대체적으로 볼 때 4가지 요인이 작용한다고 본다.

첫째 계육 생산량

둘째 정치 경제 사회문제

셋째 계절적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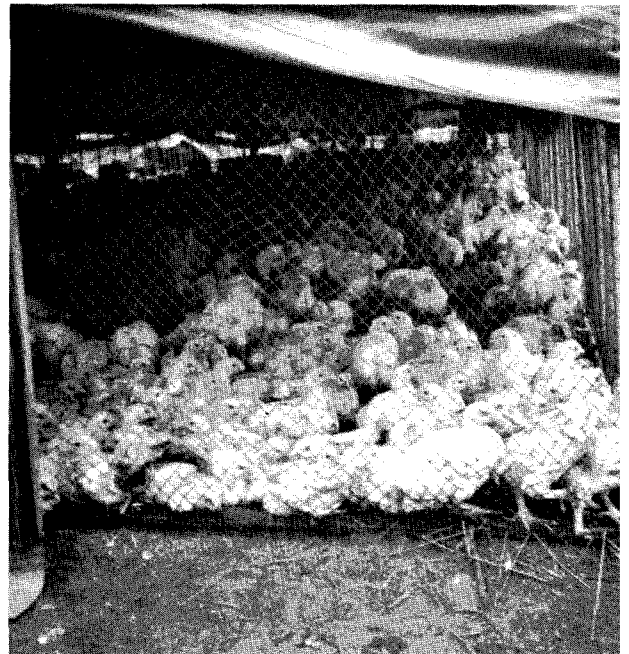
넷째 타 육류와의 경쟁

위 네가지 요인을 적용하여 볼때 육계 가격의 폭락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생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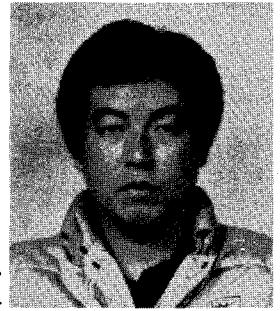
1. 계육 생산량

금년 복병아리 값은 전례없는 최고 470원까지 증개상인을 통하여 공급받음으로써 과열의 정도가 생산의 과잉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요인으로 등장(노계도래지연)

여기에 왕병아리, 산란계 숫병아리 등의 대거 등장으로 사료 생산은 드디어 4만톤을 돌파하는 기록과 함께 병아리 생산부터 과잉이었고 비싼 병아리 구입에서 오는 부담과 기대심리는 하이 850원 세미 1,100-1,250원의 엄



과 반성



김 봉 립
천안육계분회 분회장,
성림농장 대표

청난 차등 가격을 벌이는 등 세미 출하의 기피 현상이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급기야 7월 10일 10개회사 후기 사료 5,400톤의 물량 증가를 보이면서 과잉에서 과잉으로 사료 총 생산은 사상 최초로 월 10만톤을 돌파했으며 곧이어 8월의 육계 가격을 450원까지 하락시킨 근원이 되고 말았다.

2. 정치경제 사회문제

예년에 8월은 학생들의 방학으로 별다른 정치소요 없이 넘어 갔으나 금년 여름은 전혀 없었던 노사 분규로 사회의 혼란이 어느때 보다 가중되었으며 공장의 휴업 폐쇄 등은 수출의 둔화, 소득의 둔화로 이어져 현재와 앞으로의 계속소비량 구성비에 많은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돼 앞날의 전망을 어둡게 하며 장기적 불황의 근원이 되었다.

3. 계절적 변동

우리나라는 4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며 이에 상응하는 계속의 소비량도 뚜렷한 변화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무더위가 계속 되리라는 기상대의 예보와는 달리 태풍과 폭우로 얼룩진 금년은 시원한 탓인지 질병없는 생산이었고 계속은 이로 인하여 소비의 감퇴, 돈육은 소비 증가를 보였다.

4. 타 육류와의 경쟁

타 육류의 대표적인 우육과 돈육은 시장 경쟁에서 밀접하며 그 중 돈육이 가장 중요시 생각된다.

금년 하반기 돈육의 하락세는 이미 여러번에 걸쳐 고의 홍보를 했으며 이에 육계 생산 농장은 경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으레히 복경기에 소비의 증가만을

기대한 것이 폭락의 원인중 하나이며 앞으로 하반기 돈육 가격의 폭락은 더욱 심하며 지속적 계속의 소비를 둔화시키는 큰 요인으로 등장 함으로써 이에 대한 계속 생산의 조절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며 계속 소비 홍보 또한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

5. 윤년을 경계해야

옛 어른들의 말씀 중에 윤년에는 둥근과일이 귀하다는 속언이 있다. 이는 기후의 기상 이변을 뜻하며 금년 세계적 기상 학자와 곡물 메이저들이 기상 이변을 예측한 것을 중요시해야 한다.

과거의 정치 경제에서도 석유파동, 곡물파동, 고 박대통령 시해사건, 버마 아웅산사건, 금년의 노사분규등 큰 소용돌이가 윤년에 발생했으며 이와 때를 같이한 육류의 증가는 4년을 주기로 커다란 불황의 먹구름이 되어 수많은 양축 농가와 업계의 도산이 속출했음을 상기하며 다가오는 윤년은 지금부터 경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대응해야 한다.

결 론

커다란 불황은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시세의 저가를 만들며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데는 도움이 되었으나 그때마다 수많은 양축가의 도산이 있었음을 다시한번 상기하며 가격의 폭락이 우연이거나 운수로만 생각하는 것은 내일의 발전을 저해하는 큰 원흉이며 깊은 자기 반성과 냉철한 비판만이 앞으로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며 내일 더욱 풍요롭게 이끄는 열쇠가 될 것이다. 한해